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의 역할 분석

- 자영업의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조준모 (평택대 경제학)

I. 머리말

우리 나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으나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원인들 중 중요한 것으로 자영업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개인들이 자영업자가 되는지 또는 자영업이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등등에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은 현재 체계적으로 분석·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에 대한 외국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Moore(1982)의 연구와 같이 분단 노동시장구조 아래에서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Blau(1987), Lucas(1978)의 연구와 같이 생산성이 높은 고능력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대가를 향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영업자의 길을 선택한다는 논의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논의에 대해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는 생산성이 매우 낮아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저능력자군과 생산성이 높고 일반적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 자영업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극대화하려는 고능력자군의 둘로 구성된 분단 노동시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한편에서는 정상적인 임금근로자로서의 직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소규모의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벤처사업가와 같이 적극적인 사고와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사업분야에 참여하는 고능력자 계층이 공존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이러한 가정의 적합성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것이다.

다음의 제II장에서는 우선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단순한 정태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이 모형은 자영업자가 저능력자군과 고능력자군의 서로 다른 두 계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III장에서는 사용된 데이터의 특성과 성격을 본 고의 주제와 맞게 분석, 정리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IV장에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 제시된 가정의 적합성을 다각도에서 검증하고 있다. 분석의 결

과는 우리 나라의 자영업자는 저능력자군과 고능력자군의 두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본 고의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II. 자영업 선택에 관한 이론적 틀

이 장에서는 단순모형을 통하여 자영업 선택(choice)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단순모형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요점은 자영업 부문이 임금부문에 비하여 근로자 능력에 있어서의 이질성(異質性)이 심할 것이고 자영업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군의 경우는 능력의 시장선별과정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¹³⁾

우리 나라에서는 자영업 부문으로의 전직(轉職)을 능력에 대한 시장선별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이 어렵거나 또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시 기대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세한 자영업자군으로 추락하는 비자발적인 현상으로 흔히들 여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근로자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자영업자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실증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근로자의 생산적 능력을 q 로 정의하고 임금부문의 산출물수준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q 는 근로자의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로서 $q_{\min} \leq q \leq q_{\max}$ 라고 가정하고 $f(\cdot)$ 와 $F(\cdot)$ 는 각각 q 의 확률밀도함수와 분포함수를 나타낸다. 임금부문의 기업들은 q 에 관하여 無知하지만 사전적으로 관측 가능한 근로자의 특징을 선별하여 q' 이상의 q 를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고 q_c 이상의 생산능력 q 를 가진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자영자가 된다고 가정하자.¹⁴⁾ q' 이하의 생산능력 q 를 가진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가 됨을 의미하여 능력에 따라 비교우위가 있는 직업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때 경쟁시장하의 한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salary)은 다음과 같다.¹⁵⁾

$$S = \int_{q'}^{q_c} \frac{qf(q)}{F(q_c) - F(q)} dq \quad (1)$$

임금부문에서의 생산적 능력 q 를 가진 임금근로자는 자영업부문에서 생산적 능력을 $(\theta q - k)$ 만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생산적 능력이상이 되는 자영업자만이 양의 순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13) 이 논문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주도 자영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14) 후술되겠지만 q_c 는 균형에서 그 값이 결정되게 된다.

15) 물론 임금부문에서도 성과급보수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Lazear (1995)는 효율적인 성과급보수로써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본에 대한 지대를 근로자가 생산한 산출물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100%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업이 효율적인 성과급 보수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산적 능력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자영업과 임금부문에서 공히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게 된다. 한편 임금부문에서의 능력 한 단위당 생산성을 1로 가정하였으므로 $(\theta q - k)$ 는 임금부문의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비교된 자영업의 생산성을 의미한다.

생산적 능력이 $\frac{k}{\theta - 1}$ 보다 큰 근로자는 자영업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생산적 능력이 $\frac{k}{\theta - 1}$ 보다 작은 근로자는 임금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즉 θ 가 클수록 혹은 k 가 작을수록 자영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근로자가 많아지게 된다.

여기서 능력에 관한 한계보수를 결정하는 θ 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¹⁶⁾ 첫째, 임금부문에서는 피용자-고용자사이에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비용 및 감독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경쟁적 시장구조에서 이는 임금부문근로자에 대한 능력의 한계보수를 감소시키게 되며 이는 θ 의 증가를 의미한다. 한편 자영업부문에서 소득의 은폐기회가 많다면 이는 자영업에서 생산능력에 대한 한계보수를 증가시키게 된다.¹⁷⁾ 그러나 임금부문에서 기업생산활동에 따른 특화와 생산협조를 통하여 개별근로자의 생산성이 증대된다면 θ 는 감소하게 된다.¹⁸⁾

자영업에서 소득은 근로자의 생산적 능력의 함수 $(\theta q - k)$ 외에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가령 p 의 성공확률로 u 의 값을 취하며 $(1 - p)$ 의 실패확률로 $-u$ 의 값을 취한다고 가정하자.

자영업을 택할 경우의 소득 I (Income)은 다음과 같다.

$$I = p\{(\theta q - k) + u\} + (1 - p)\{(\theta q - k) - u\} - \lambda u^2 - \tau \quad (2)$$

위에서 λu^2 ($\lambda \geq 0$)는 자영업 소득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확정 동등치(certainty equivalence)화 하기 위한 조정항이며 소득의 분산 u^2 에 비례한다. λ 는 근로자의 위험기피도를 반영하는데 λ 가 클수록 근로자는 보다 위험기피적임을 나타낸다. τ 는 자영업을 개업하는데 드는 고정비용을 나타내며 τ 가 클수록

16) Blau(1987)는 미국의 1967-82년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변화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술변화의 대리변수로 해당산업내의 자영업자 비중을 그 산업의 총요소생산성과의 비율을 대리변수로 사용한 그의 연구에 의하면 컴퓨터 및 통신수단의 보급과 같은 자영업의 기술변화는 자영업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에서 θ 의 값이 증가하거나 k 의 값이 감소할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에서 유사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17) 세금 혹은 세율이 자영업자화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Long (1982), Blau (1987) 그리고 Schetze (1998)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Schetze (1998)는 소득세의 증가는 자영업자의 증가와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 Moore(1982)는 임금부문에서 사용자 차별이나 소비자 차별이 흑인이나 여성 노동에 대한 보상을 작게하여 자영업으로 자기선택하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이러한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통상적인 임금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하여 인종과 성더미의 추정계수를 살펴본 바 흑인이나 여성이라는 특징이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한 임금부문보다도 자영업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차별가설을 기각하였다. 능력의 분포가 같고 여성의 한계보수가 남성의 한계보수보다 크다면 여성이 자영업자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보임으로서 차별적 기대가설의 이론적 근거가 본 모형에서도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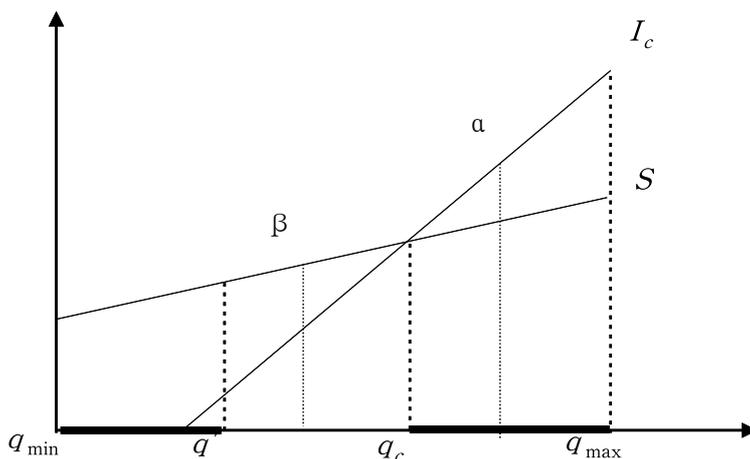
자영업 이직 희망자는 보다 심각한 유동성 제약에 접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q \geq q'$ 인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 선택은 $S \leq I_c$ 가 만족될 때 이루어지게 된다.¹⁹⁾ q_c 와 I_c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q_c = \frac{S + \tau + k - 2pu + u + \lambda u^2}{\Theta}$$

$$I_c = p(\Theta q_c + u) + (1-p)(\Theta q_c - u) - \lambda u^2 - \tau - k \quad (3)$$

식 (1)의 S 와 식 (3)의 I_c 는 q_c ($q' \leq q_c \leq q_{\max}$)에 관하여 단조증가하며 안정적인 균형점이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²⁰⁾



위의 그림의 균형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가령 α 점을 선택해보자. α 점에서 $I_c \geq S$ 이므로 임금부문에서 생산능력이 높은 근로자들은 자영업으로 전환하여 임금부문의 평균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생산능력이 높은 근로자의 자영업 전환을 유인하여 결국 임금부문을 선택한 근로자의 생산능력 상한치는 더욱 낮아져 q_c 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I_c \leq S$ 인 β 점에서도 임금부문 근로자 생산능력의 상한치가 q_c 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결국 I_c 와 S 가 교차하는 q_c 에서 안정적인 균형이 얻어지게 된다.

$q \geq q'$ 인 근로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능력자가 자영자가 되며 이들의 비중은 $1 - F(q_c)$ 가 된다. 반

19) 자영업자 되는 원인 가운데 선호의 차이를 생각해 볼수도 있다. 그러나 Blanchflower and Oswald (1998)는 실증분석 변수로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NCDS)를 사용하여 어떤 특정한 심리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영업자화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나 이러한 심리적 성향의 차이로 인하여 특별히 자영업자화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20) 안정적인 균형점을 얻기위한 조건은 I_c 의 기울기가 S 의 기울기보다 크다는 것이다. I_c 의 기울기가 S 의 기울기보다 작은 불안정한 균형에서는 자영자를 선택한 근로자가 없거나 모두 자영업자화하는 비현실적인 해가 얻어진다.

면 $F(q_c) - F(q)$ 는 임금근로자를 선택하며 $F(q)$ 는 임금부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영업자화 된다. 따라서 자영업부문은 $\phi_h = 1 - F(q_c)$ 비율의 고능력군과 $\phi_l = F(q)$ 비율의 저능력군으로 구성이 되어²¹⁾ 임금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균형점에서 ϕ_h 에 관한 비교정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phi_h}{\partial \theta} = \frac{\partial I_c}{\partial \theta} \cdot \frac{\partial q_c}{\partial I_c} \cdot \frac{\partial \phi_h}{\partial q_c} > 0 \quad (4)$$

(+), (-), (-)

$$\frac{\partial \phi_h}{\partial k} = \frac{\partial I_c}{\partial k} \cdot \frac{\partial q_c}{\partial I_c} \cdot \frac{\partial \phi_h}{\partial q_c} < 0 \quad (5)$$

(-), (-), (-)

$$\frac{\partial \phi_h}{\partial p} = \frac{\partial I_c}{\partial p} \cdot \frac{\partial q_c}{\partial I_c} \cdot \frac{\partial \phi_h}{\partial q_c} > 0 \quad (6)$$

(+), (-), (-)

$$\frac{\partial \phi_h}{\partial \lambda} = \frac{\partial I_c}{\partial \lambda} \cdot \frac{\partial q_c}{\partial I_c} \cdot \frac{\partial \phi_h}{\partial q_c} < 0 \quad (7)$$

(-), (-), (-)

$$\frac{\partial \phi_h}{\partial \tau} = \frac{\partial I_c}{\partial \tau} \cdot \frac{\partial q_c}{\partial I_c} \cdot \frac{\partial \phi_h}{\partial q_c} < 0 \quad (8)$$

(-), (-), (-)

$$\frac{\partial \phi_h}{\partial q'} = \frac{\partial S}{\partial q'} \cdot \frac{\partial q_c}{\partial S} \cdot \frac{\partial \phi_h}{\partial q_c} < 0 \quad (9)$$

(+), (+), (-)

식 (4)는 자영업 부문에서 능력에 관한 한계보수가 증가할수록 자영업자의 비율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 인적자본이 많은 고능력자군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연구의 함의와 일치하고 있다.(Lucas, 1978; Blau, 1987).

21) Moore(1982)는 분단 노동시장구조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고의 모형은 생산능력이 매우 높은 근로자와 매우 낮은 근로자들이 자영업자화하여 임금부문에 비하여 근로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높다는 특징이 모형에 반영되었다.

식 (5)는 자영업 부문에서 양의 잉여를 창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능력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자의 비율은 감소하게 됨을 나타낸다. 식 (6)은 근로자들이 자영업부문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위험기피적일수록 자영업 부문의 비율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산적 능력이 작은 근로자일수록 위험기피적 요소에 의하여 직업 선택시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식(7)은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근로자 가운데 능력이 많거나 유동성 제약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전직을 고려하는 한계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 전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유동성 제약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능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초기자본이 큰 사람들이 기업가가 된다고 하여 능력의 선별과정에서 유동성 제약을 강조하는 연구로 Evans and Leighton (1989)와 Evans and Jovanovic (198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Evans and Leighton (1989)와 Evans and Jovanovic (1989)는 미국의 미시자료 (National Longitudinal Survey상의 1966-81년의 청년층자료와 Current Population Survey 1968-1987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가 되는데 유동성 제약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더 큰 가구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임금부문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²²⁾ 한편 유동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고능력자이지만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서 초기에는 비교열위에 있는 임금부문에서 일정기간 머물러 자영업 투자비용을 축적하고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이직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 (8)은 임금부문에서 생산능력이 높은 근로자가 진입할수록 평균생산성과 임금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한계자영업자가 역으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부문에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문제가 해소될수록 보다 양질의 근로자가 임금근로자가 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고능력군 자영업자의 평균생산성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칭적 정보 이론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합의와 일치하여 본고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²³⁾

22) 그러나 가구자산이 자영업자화할 확률에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자본제약이 자영업 창업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란 해석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자본제약이 없는 자영업자가 여가를 포기하고 열심히 근로한 결과 가구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도 자본제약이 없어도 가구소득과 자영업자화될 확률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특별히 자식에게 상속하기를 좋아하는 효용의 측면이 (+)의 상관관계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Blanchflower and Oswald (1998)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개인, 가구, 지리적 특징에 의한 영향을 제어한다고 하여도 자본제약이 자영업자화할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의 유동성 제약에 대한 연구로는 Holtz-Eakin, Jofaian and Rosen (1994), Bernhardt (1994)를 들 수 있다.

23) Blau(1987)는 기술변화 외에도 한계세율의 변화가 자영업자화 되는 경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는 한계세율의 변화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얻었다. 즉 소득수준 \$7,000와 \$17,000의 한계세율의 변화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저소득(\$7,000)에서는 한계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고소득(\$17,000)에서는 한계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계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은폐의 가능성이 작은 자영업의 비율이 전소득부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직관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70년대 초반들어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저소득층의 한계소득율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한계소득이 증가하여 누진적인 구조로 한계소득율이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계세율의 변화가 자영업의 상대소득(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의 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본고의 모형으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즉 한계세율의 증가는 Θ 를 증가시키고 Θ 의 증가는 고능력 자영업자의 비율은 증가시키게 된다. 한편 임금부문에서는 필요노동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q' 를 낮추어 저능력군에서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상대적으로 고능력자가 빠져나가고 저능력자가 유입됨에 따라 임금부문의 비율은 증가하나 평균소득은 감소하는 것은

자명하다.

Ⅲ. 자료의 성격과 내용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관련된 선택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수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많은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정의상 이들의 근로에 대한 보수는 가구 또는 배우자 소득의 형태로 나타나 정확한 근로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자영농 등의 형식으로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계속 일하여 왔고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 양식은 비농림수산업 분야에서의 자영업자와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이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인구학적 분포

(단위: %, 명)

구 분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성 별	남 성	69.8(1087)	63.3(2514)
	여 성	30.2(470)	36.7(1457)
연령별	20세 미만	0.1(1)	1.9(75)
	20 ~ 29세	7.2(112)	26.8(1065)
	30 ~ 39세	32.2(502)	32.2(1280)
	40 ~ 49세	36.0(561)	24.0(952)
	50 ~ 59세	19.2(299)	11.4(452)
	60세 이상	5.3(82)	3.7(147)
학력별	초등학교 이하	15.1(235)	11.0(437)
	중학교 졸업	18.7(291)	12.6(500)
	고등학교 졸업	42.9(668)	42.4(1683)
	전문대 졸업	8.4(131)	8.8(350)
	대학 이상	14.9(232)	25.2(1001)
혼인상태별	미 혼	6.9(108)	27.7(1098)
	결 혼	85.2(1326)	67.3(2672)
	별거/사별/이혼	7.9(123)	5.1(201)
가구주와의 관계	본 인	71.7(1117)	55.6(2206)
	배우자	21.3(332)	18.7(743)
	자 녀	5.3(83)	22.2(882)
	기 타	1.6(25)	3.5(140)
합 계		100.0(1557)	100.0(3,971)

주: 괄호안의 값은 해당되는 응답자수

'98년의 제1차 한국노동패널연구의 조사결과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수산업 종사 자영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는 모두 1,557명이며, 임금근로자는 3,971명이다.²⁴⁾ <표 1>과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로 임금근로자의 63.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임금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자영업자의 평균연령이 42.96세인 반면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이보다 5.7세가 낮은 37.2세이다.²⁵⁾ 이와 같은 연령차이를 반영하여 자영업자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은 반면 임금근로자는 30대가 전체의 1/3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의 학력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임금근로자의 교육기간은 평균 12.14년으로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교육을 받은 반면 자영업자의 교육기간은 평균 11.20년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0.96년 정도 낮게 조사되었다.²⁶⁾ 혼인상태별로는 자영업자의 85.2%가 현재 배우자가 있고 6.9%의 자영업자만이 미혼으로 조사되고 있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결혼한 비중이 사뭇 높으며, 가구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구주 본인인 경우가 자영업자의 71.7%를 차지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주인 비중이 높다. 결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녀의 숫자는 자영업자가 평균 2.24명인 반면 임금근로자는 평균 2.06명으로 자영업자의 자녀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²⁷⁾

2. 취업경험과 취업기간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직장이동과정을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측면에서 분류하면 크게 다음의 6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 ① 임금근로자 → 동일 직장근무
- ② 자영업자 → 동일 자영업에 종사
- ③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다른 직장)
- ④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⑤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 ⑥ 자영업자 → 자영업자(다른 자영업)

위의 ①과 ②는 최초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직장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이며, ③에서 ⑥까지의 경우는 기준시점을 전 직장으로 하는가 아니면 최초의 직장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구성비가 달라진다. 다음의 <표 2>은 이러한 직장의 이동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전 직장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528명 중 가장 많은 2,127명(38.5%)가 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하였다.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들어와 계속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전체의 26.5%로 두 번째이며, 그 다음으로 ④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14.2%), ⑥ 자영업자 → 자영업자(7.6%) 등의 순서이다.

24) 자영업자와의 균형을 위해 농림수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5) 자영업자 연령의 표준편차는 9.76, 임금근로자 연령의 표준편차는 11.12세이며,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연령차이에 대한 t-검정의 결과는 1%의 유의수준 아래에서 자영업자의 연령이 높다.

26)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교육기간의 차이는 1%의 수준에서 유의하다.

27) 통계적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자영업자의 자녀수가 많다.

<표 2> 직장의 이동과정과 응답자의 구성비²⁸⁾

(단위: 명, %)

이동과정	인원(구성비)	
① 임금근로자 → 동일 직장	1,463(26.5)	
② 자영업자 → 동일 자영업	352(6.4)	
	최초 직장 → 현 직장	바로 전 직장 → 현 직장
③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2,145(38.8)	2,127(38.5)
④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885(16.0)	785(14.2)
⑤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363(6.6)	381(6.9)
⑥ 자영업자 → 자영업자	320(5.8)	420(7.6)
합 계	5,528(100.0)	

응답자들은 처음으로 취업을 한 이후 제1차 패널조사의 시점까지 평균 2.33개의 직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개인들의 자영업 횟수는 평균 1.43회이고 임금근로자이거나 경험이 있는 개인들의 임금근로 횟수는 평균 1.98회로 자영업 종사자들보다 임금근로자들이 더욱 자주 직장을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로 취업을 한 시점에서의 연령을 살펴보면 평균 26.5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초의 직업이 자영업인 개인들의 경우 28.9세에 자영업을 시작하여 임금근로자의 26.0세보다 약 3세 가량 많다.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흔히 기업특수인적자본(firm specific human capital)이라고 하는데 응답자들은 평균 6.41년 동안 현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서는 자영업자의 근속기간이 7.28년, 임금근로자가 6.07년으로 자영업자의 근속기간이 약 1.2년 정도 많다.²⁹⁾ 또한, 현재까지의 모든 취업기간을 모두 합계한 개인의 일반인적자본(general human capital)은 <표 3>과 같이 평균 12.3년으로 이를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과 피용자로 종사한 기간으로 구분하면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이 9.74년, 임금근로에 종사한 기간이 9.56년이다³⁰⁾ 더불어 현재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현재 자영업자인 개인의 일반인적자본은 15.2년으로 임금근로자의 일반인적자본 11.2년 보다 4년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최초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의 이동과정에는 임금근로 → 자영업 → 임금근로 등과 같이 자영업과 임금근로를 2번 이상에 걸쳐 넘나드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들의 숫자는 모두 39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29) 이러한 근속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다.

30) 이 값은 자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개인들이 생애동안 자영업에 종사한 전체 기간의 평균 값을 뜻한다. 이는 임금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표 3> 바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이동과정과 평균 근속기간

(단위: 년)

구 분	현 직장	바로 전 직장	생애(life-time) 취업기간		
			자영업	임금근로	소 계
① 학 교 → 임 금	8.84(8.83)	-	-	8.84(8.83)	8.84(8.83)
② 학 교 → 자영업	11.09(9.80)	-	11.09(9.80)	-	11.09(9.80)
③ 임 금 → 임 금	4.30(5.19)	4.20(5.15)	7.79(7.14)	10.96(8.31)	11.72(9.10)
④ 임 금 → 자영업	6.12(6.49)	6.08(5.89)	6.81(7.04)	8.57(6.73)	15.27(9.55)
⑤ 자영업 → 임 금	5.26(6.44)	7.74(8.23)	9.28(8.69)	8.25(7.64)	17.17(10.70)
⑥ 자영업 → 자영업	6.29(6.44)	6.95(6.22)	15.56(9.34)	6.50(5.35)	18.35(9.96)
전 체	6.41(7.33)	5.28(5.95)	9.74(9.04)	9.56(8.20)	12.30(9.80)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

3. 소득과 임금

자영업자들 중 19.3%(300명)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들을 자영업자의 소득계산에 포함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은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이들을 소득계산에 포함시킬 경우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111.6만원과 거의 비슷한 114.7만원이다.³¹⁾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다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주요한 이유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보다 더욱 심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자영업자의 소득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분석결과의 근본적 왜곡을 가져오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적자를 본’ 자영업자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³²⁾

적자를 보고있는 자영업자를 분석에서 제외시켰을 때 응답자 전체의 평균소득은 월 119만원이며 이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은 142.3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 111.6만원보다 약 30만 7천원(27.5%)이 많다.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소득비는 자영업의 경우 1 : 0.526으로 임금근로의 1 : 0.605에 비해 여성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표 4>와 같이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40대까지 소득이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이후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별로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는 일반적인 양상이다. 또한, 현 직장 근속기간의 측면에서는 임금근로자들의 소득과 근속기간 사이의 상관계수가 0.419로 상당히 높은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과 근속기간 사이의 상관계수는 0.028로 매우 낮다.

이전 직장경험이 없는 근로자들의 경우 첫 직업으로 자영업으로 선택한 이들의 소득은 월평균 139만

31) ‘적자를 보았다’는 경우 해당 자영업자의 소득은 ‘0’이 된다. 또한, 적자를 본 자영업자까지 포함시켰을 때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는 10%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다.

32) 적자를 본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자영업에서 성공한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되어 또 다른 형태의 왜곡 현상을 가져올 위험이 높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줄어든 소득데이터를 사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왜곡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여기에서는 적자를 본 자영업자를 제외하였다.

원으로 임금근로를 선택한 이들의 월평균소득 121만 6천원에 비해 14.3%가 높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비가 1.275 : 1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첫 직업부터 자영업을 시작한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첫 직장을 자영업으로 선택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응답자 특성별 현 직장에서의 소득

(단위: 만원)

구 분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소 계
성 별	남 성	167.4(132.2)	130.5	139.9(131.0)
	여 성	88.0(74.2)	79.0	80.9(77.8)
연령별	20세 미만	-	56.2	56.2(55.5)
	20 ~ 29세	115.3(98.7)	90.7	92.7(91.5)
	30 ~ 39세	150.5(121.0)	123.2	129.7(122.5)
	40 ~ 49세	153.5(119.5)	124.9	133.9(122.9)
	50 ~ 59세	132.2(109.1)	115.9	121.7(113.2)
	60세 이상	98.7(86.7)	92.2	94.4(90.3)
학력별	초등학교 이하	84.2(74.2)	68.7	73.7(70.6)
	중학교 졸업	113.0(90.8)	82.5	92.2(85.5)
	고등학교 졸업	149.2(119.9)	105.0	115.6(109.2)
	전문대 졸업	149.2(111.6)	114.1	121.7(113.4)
	대학 이상	224.6(173.4)	155.4	165.9(158.8)
바로 전 직장 형태별	미취업	139.0(107.8)	121.6	124.4(118.9)
	자영업	144.0(118.7)	96.6	115.6(109.7)
	임금근로	142.7(115.6)	107.4	119.2(108.2)
합 계		142.3(114.7)	111.6	119.0(112.5)

주: 괄호 안의 값은 적자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시켰을 때의 소득이다.

응답자의 직장 이동과정에 따라 평균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다음의 <표 5>에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할 경우에 소득의 증가폭이 가장 커서 63.8%를 기록하고 있는데³³⁾ 이는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한 근로자의 전 직장의 소득이 87만 1천원으로 ‘임금근로에서 임금’으로 이동한 근로자의 전 직장 소득 76만 3천원보다 높다는 사실과 함께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고능력자군($q \geq q'$)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이직사유를 고려할 때 더욱 명확하다. 즉, 이직사유를 자발적과 비자발적의 둘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직사유별로 근로자의 직장이동 과정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 ‘임금에서 임금’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임금에서 자영업’ 등으로 이동할 때 소득이 증가하며, 비자발적

33) ‘임금근로에서 임금’으로 이동할 경우의 소득증가폭은 40.8%인 반면,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의 이동시 소득증가폭은 8.8%, ‘자영업에서 임금’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5.0%의 소득증가를 보이고 있어 자영업에서의 이동시 소득증가폭이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임금’으로 이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임금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하였을 때 소득의 증가폭이 가장 커 무려 78.3%의 소득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고능력자 군에 속하며 직장이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산성 및 소득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지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의 전 직장 평균소득은 79만 4천원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들의 평균소득 103만 4천원에 비해 24만원 정도가 낮다는 결과에서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³⁴⁾

<표 5> 바로 전 직장의 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

(단위: 만원)

구 분		바로 전 직장의 소득	현 직장의 소득
자영업자		98.3(86.7)	142.3(114.7)
임금근로자		78.1(74.0)	111.6(111.6)
③ 임금 → 임금		76.3(75.2)	107.4(107.4)
④ 임금 → 자영업		87.1(85.8)	142.7(115.6)
⑤ 자영업 → 임금		92.0(67.4)	96.6(96.6)
⑥ 자영업 → 자영업		132.4(88.6)	144.0(118.7)
자발적 이직자	③ 임금 → 임금	71.0(49.5)	103.6(61.8)
	④ 임금 → 자영업	82.0(64.8)	146.2(129.4)
	⑤ 자영업 → 임금	86.6(92.8)	94.1(46.5)
	⑥ 자영업 → 자영업	124.2(124.4)	141.1(102.3)
비자발적 이직자	③ 임금 → 임금	91.5(63.8)	99.3(64.9)
	④ 임금 → 자영업	123.4(86.7)	124.0(98.2)
	⑤ 자영업 → 임금	121.7(110.4)	109.0(66.9)
	⑥ 자영업 → 자영업	170.2(112.7)	126.7(101.4)
합 계		84.1(78.0)	119.0(112.5)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이다.

3. 이직사유

근로자들의 이직사유로 전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전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기·개인사업을 하려고’가 가장 많은 14.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직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어서’가 27.5%, ‘폐업·도산’이 21.2%로 사업의 부진에 의한 전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폐업·도산’과 ‘해고’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그리고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직의 사유를 자발적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경우 가치판단에 의존한다. 비자발적 이직을 협의로 해석하여 두 가지의 경우로 제한하는

34) 이 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이직의 원인과 행태에 관한 연구: 기업규모별 분석’(금재호·조준모, 1998)을 참조할 수 있다.

것은 이직이라는 현상의 기본적으로 자기의 선택적 과정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표 6> 이직사유의 분포

(단위: %)

이직사유	전직 자영업자	전직 임금근로자	전 체
폐업·도산	21.2	10.5	12.8
(정리) 해고	-	3.1	2.4
소득이 적어서	27.5	12.6	15.8
일이 임시적 또는 장래성이 없어	5.6	7.0	6.7
적성, 능력에 맞지 않아	2.4	5.5	4.8
작업시간·환경이 나빠서	3.3	5.9	5.4
일거리가 없어서	7.7	6.9	7.1
자기·개인사업을 하려고	7.9	14.3	12.9
결혼, 육아, 가사 등 사정으로	6.2	10.4	9.5
건강상 이유로	3.5	4.2	4.0
회사내 인간관계 때문에	0.1	3.6	2.8
기타	14.6	15.9	15.7
합 계	100.0(801명)	100.0(2,912명)	100.0(3,713명)

IV. 실증분석의 결과

어떤 근로자가 자영업자가 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임금근로를 거치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고 둘째는 임금근로자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자발적으로 임금근로를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개인은 앞의 제II장에서 임금근로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능력자($q > \bar{q}$)로 자영업을 통하여 자신의 생산성에 대한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이며, 반면 전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자영업을 시작한 개인은 생산성이 낮은 계층으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자영업부문으로 전환한 개인으로 가정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신규 학졸자들 중 임금근로가 아니라 자영업을 선택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상의 가정(假定), 즉 자영업시장이 생산성이 높은 고능력자군과 생산성이 낮은 저능력자군의 둘로 구성된 이분화된 노동시장인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1. 신규취업자의 선택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출한 근로자중 18.7%만이 자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어떤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최초의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는지 단순 프로빗(probit)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7>의 제1단계 추정에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이 높고 결혼을 하였을 경우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을 때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힘들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게되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³⁶⁾

<표 7> 신규취업자의 자영업 선택과 소득 - Heckman two-stage 추정

1단계 추정 (자영업(I=1)과 임금근로(I=0)의 선택)					
설명변수			추정결과		
			추정치	표준편차	
신규 취업시 기준					
연령			0.01030	0.00558(0.065)	
혼인경험 여부(0:미혼 1:결혼경험 있음)			0.60391	0.10449(0.000)	
교육연한			-0.05451	0.11422(0.000)	
성별(1:남성, 2:여성)			-0.15245	0.08060(0.059)	
부친의 자영업 여부 (0:임금 1:자영업)			0.38027	0.10592(0.000)	
부친의 직종 (0:기타 1:임직원, 전문가, 사무직)			0.26698	0.12655(0.035)	
상수항			-0.86329	0.26327(0.001)	
chi-square 값			207.87		
pseudo R ²			0.1239		
2단계 추정 (소득)					
자영업 선택시(I=1)			임금근로 선택시(I=0)		
설명변수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결과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교육연한	0.03499	0.01483(0.02)	교육연한	0.05940	0.00558(0.00)
성별	-0.23879	0.07833(0.00)	성별	-0.23068	0.02726(0.00)
근속기간(년)	0.03605	0.01046(0.00)	근속기간(년)	0.04435	0.00497(0.00)
근속기간의 제곱	-0.00093	0.00030(0.00)	근속기간의 제곱	-0.00064	0.00018(0.00)
매출액	0.19355	0.02375(0.00)	정규직 여부(1:yes)	0.22823	0.03970(0.00)
근로자고용여부(1:yes)	0.31232	0.08594(0.00)	전일제 여부(1:yes)	0.15118	0.04331(0.00)
-	-	-	종업원수	0.02895	0.00398(0.00)
편의향	0.71651	0.63334(0.26)	편의향	0.76687	0.18349(0.00)
상수항	3.39938	0.34965(0.00)	상수항	2.71955	0.23183(0.00)
F-값		48.53	F-값		141.69
Adjusted-R ²		0.5809	Adjusted-R ²		0.5476
Root MSE		0.5229	Root MSE		0.3712

주: 2단계 추정에서 종속변수는 조사시점에서의 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이며, 괄호 안의 값은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z| 값임

또한, 나이가 들도록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못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본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따라서, 장기간 동안의 직장탐

35) 추정 및 분석에는 전직의 경험이 없는 즉, 취업경험이 현재의 직장뿐만 아니라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대상 인원은 모두 1,815명으로 이들의 19.4%인 352명이 최초의 직업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다.

36) 최초의 직업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응답자들의 연령은 자영업을 시작할 당시를 기준 평균 32.24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임금근로자로 첫 취업을 시작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6.1세로 조사되고 있다.

색결과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³⁷⁾

남녀의 성별로는 남성들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³⁸⁾ 교육연한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이 최초의 직업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이 직업의 선택에 영향을 끼쳐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였을 때에 자녀도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아버지의 직업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준)전문직 또는 사무직’일 때 신규 취업자가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⁹⁾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을 때 자녀는 자영업에 대한 사전적인 know-how를 지니게 되고 동일한 생산능력 q 아래에서도 자영업에 대한 한계보수 θ 가 높고 자영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으며 자영업의 시작에 따른 비용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이들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고 따라서 자산도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자녀의 자영업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준)전문직 또는 사무직’인 경우 자녀가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가설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아버지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를 통제(control)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준)전문직 또는 사무직’인 경우는 다른 직업에 비해 고소득 계층이고⁴⁰⁾ 따라서, 부모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하고 있어 자녀의 자영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고 따라서, 학력수준이 낮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녀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은 일자리에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보다는 자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부모보다 낮은 인적자본을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초로 취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영업과 임금근로에 따른 소득(임금)의 추정은 소득(임금)이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기선택(self-selectivity)의 문제를 지니고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기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신규 근로자들의 소득(임금)을 추정하기로 한다.

자영업의 기대소득(W_s^e)이 임금근로의 기대임금(W_w^e)보다 크다면 그는 자영업에의 취업을 기도하고 ($I=1$), 반대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로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게($I=0$) 된다. 자영업의 기대소득

37) 장기간 동안 직장탐색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동안의 생계를 부모 등 가족/친지들이 지원해 줄 재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되며, 이들의 경우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저생산 분야의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 대신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가족이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38) 자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취업자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41.6%로 높은 편이지만 이들 여성취업자의 46.5%(467명)가 무급가족종사자로 가족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남성의 경우에는 자영업 분야의 종사자 중 4.3%만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되었다.

39) 응답자가 자영업을 시작할 당시 부모의 직업에 관한 정보는 없으며, 여기에서 사용한 부모의 직업정보는 응답자가 만 14세일 당시의 직업정보이다.

40) 참고로 다른 직업에는 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단순조립·가공 종사자, 기계 등 설비조작 종사자, 단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과 임금근로의 기대임금의 차이를 $I^*(=r'Z-\varepsilon)$ 라고 하면⁴¹⁾

$$I = \begin{cases} 1 & \text{if and only if } I^* \geq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어떤 특정 근로자 i 에 대한 임금회귀식은 자영업의 선택 여부에 따라 다음의 두 식으로 구분되어 진다.

$$\begin{aligned} \log W_i &= \alpha_1 + \beta_1'X_{1i} + u_{1i} && \text{if and only if } r'Z_i \geq \varepsilon_i \text{ (자영업 선택시)} \\ \log W_i &= \alpha_2 + \beta_2'X_{2i} + u_{2i} && \text{otherwise} \end{aligned}$$

따라서, 선택적 편의(selectivity bias)를 감안한 임금회귀식은 다음의 식(10)과 같다.

$$\begin{aligned} \log W_i &= \alpha_1 + \beta_1'X_{1i} - \sigma_1 \frac{\phi(r'Z_i)}{\Phi(r'Z_i)} + \varepsilon_{1i} && \text{for } I_i = 1 \\ \log W_i &= \alpha_2 + \beta_2'X_{2i} + \sigma_2 \frac{\phi(r'Z_i)}{1-\Phi(r'Z_i)} + \varepsilon_{2i} && \text{for } I_i = 0 \end{aligned} \quad (10)$$

식(10)은 '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model'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Heckman의 두 단계 추정법(Heckman's two-stage estimation method)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위의 <표 7>과 같다.

추정결과는 통상적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모두 교육연한이 길수록, 남성일수록, 그리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임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매출액과 근로자의 고용여부(즉, 고용주의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소득도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일 때, 시간제근로보다는 전일제로 근무할 때 임금이 높아지고 종업원수가 많아 기업규모가 큰 회사에 근무할 때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임금추정식에서는 선택적 편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선택적 편의항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 취업자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인적자본(general human capital)과 기업특수인적자본(firm specific human capital)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교육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대변하는 주요한 변수가 되는데 교육이 소득(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교육의 한계수익률은 자영업자는 0.03499이나 임금근로자는 이보다 거의 70%가 높은 0.05940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에 상당한 수익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⁴²⁾

41)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시작시 요구되는 제원 등의 조달비용과 자영업에 따른 불확실성이 임금근로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이들 요인들이 모형에 감안되어야 하나 편이상 모형에서는 기대임금에 이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기대소득은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자를 선택할 때 높아지고 이에 최초의 직업 선택시 고학력자들은 임금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교육수준이 근로자의 생산능력을 대표하는 변수라고 할 때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이 임금근로를 선택한다는 분석결과는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근로자들 중 생산성이 낮은($q < q'$) 계층이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되어 진다.⁴³⁾

2. 전직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선택과정⁴⁴⁾

전 직장에서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들 중 누가 자영업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우선 ‘임금에서 자영업’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 개인들과 ‘임금에서 임금’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 개인들의 임금회귀식을 추정하였다.⁴⁵⁾ <표 8>에서 ‘임금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한 개인의 임금추정식을 살펴보면 기업의 특수인적자본(firm specific human capital)인 근속기간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금에서 임금’으로 이동한 개인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상승효과가 정(+)의 값을 가지고 유의하게 추정된 결과와 대비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일반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일반적 인적자본(general human capital) 향에 대한 추정치는 ‘임금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한 근로자의 경우 0.03369로 ‘임금에서 임금’으로 이동한 근로자의 0.01340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 내에서의 임금상승이 기업의 특수한 인적자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반적 인적자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일반적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기업으로의 취업보다는 독자적인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기존 연구의 함의와 일치하고 있다.(Lucas, 1978; Blau, 1987)

42) 선택적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는 교육의 한계수익률이 자영업자 0.04191 임금근로자 0.04467로 차이가 거의 없게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이 자영업 대신 임금근로를 선택한 선택적 편기(selectivity bias)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적 편기를 제거한 결과는 본문에서의 결과와 같이 교육의 한계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43) 여기에서의 분석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44) 전에 근무하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근로자는 이직에 대해 선택권이 없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근로자는 근무하는 직장에 계속 근속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 지속적인 근무까지를 감안하여 분석을 하여야 하나 여기에서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 자체는 이미 사전적으로 결정된 사건으로 간주하고 이직 이후 근로자의 선택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45)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전 직장에서 임금의 자연대수 값이다.

<표 8> 자발적 이직자들의 임금회귀식 추정결과 - 전 직장의 임금기준

설 명 변 수	종 속 변 수					
	모든 자발적 이직자		현 직장의 종사상 지위			
			자영업		임금근로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교육기간(년)	0.06276	0.00458	0.06176	0.01098	0.06248	0.00473
성 별(1:남성 2:여성)	-0.53722	0.02882	-0.50445	0.07461	-0.51876	0.02922
근속기간(년)	0.01608	0.00785	-0.00398	0.01830*	0.01358	0.00828
근속기간의 제공	-0.00059	0.00031	0.00049	0.00077*	-0.00074	0.00032
일반인적자본(년)	0.02042	0.00606	0.03369	0.01524	0.01340	0.00621
일반인적자본의 제공	-0.00075	0.00019	-0.00151	0.00048	-0.00039	0.00019
기업의 규모	0.01088	0.00437	0.02157	0.01018	0.01107	0.00457
상수항	4.38347	0.08451	4.47660	0.20797	4.33858	0.08679
표본수	1,599		426		1,173	
F-값	114.04		17.48		103.99	
Adjusted-R ²	0.3312		0.2135		0.3809	
Root MSE	0.5151		0.6271		0.4563	

주: '*' 표시는 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음 단계로 자발적 이직자들이 자영업 또는 임금근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한 로짓(logit)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일반인적자본에 대한 추정치가 0.21652로 정(+)의 값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표 8>이 시사하는 함의와 같이 일반적 인적자본이 많은 개인들이 자영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 직장의 임금이 높을수록 자영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결과와 연결되어 진다. 즉, 일반적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하고 있고 자신의 임금상승이 기업의 특수한 인적자본이 아니라 일반적 인적자본에 의해 영향받는 개인의 경우 이들은 자신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영업으로의 자발적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교육수준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부(負)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신규취업자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 인적자원이 많은 고능력자의 경우 가능한 일찍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생애의 기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⁴⁶⁾ 임금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짧을수록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결과는 전체 근로기간 중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수록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⁴⁷⁾

46) 첫 직업을 자영업으로 시작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시작할 당시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3 이상이 적어도 30대 초반 이전에 자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발적 이직자들의 평균 연령이 34.5세인 점과 대비되고 있다.

47) 결혼이 자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정결과는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9> 자발적 이직자들의 직장선택 logit 추정결과

설 명 변 수	종 속 변 수 (1:자영업 0:임금근로)		
	추정치	표준편차	P> z
교육기간(년)	-0.02516	0.01314	0.056
연령	-0.01284	0.00653	0.049
혼인여부(1:yes 0:no)	0.50493	0.10056	0.000
성별(1:남성 2:여성)	-0.23871	0.09012	0.008
전 직장의 임금(log값)	0.60868	0.07011	0.000
전체 임금근로기간	-0.17062	0.01080	0.000
일반인적자본	0.21652	0.01792	0.000
일반인적자본의 제공	-0.00265	0.00040	0.000
상수항	-2.59627	0.41905	0.000
표본수	1,821		
LR chi2	533.96		
Pseudo R ²	0.2530		

자발적으로 임금근로를 그만두고 자영업자 또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이들에 대한 소득회귀식의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10>에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소득회귀식은 자기선택(self-selectivity)의 문제를 지니게 되고 따라서 Heckman의 이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10> 자발적 이직자의 현 직장에서의 임금회귀식 추정 - Heckman two-stage 추정

2단계 추정 (소득)					
자영업 선택시(I=1)			임금근로 선택시(I=0)		
설명변수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결과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교육연한	0.02422	0.00745(0.001)	교육연한	0.05971	0.00390(0.000)
성별	-0.10423	0.05236(0.047)	성별	-0.27023	0.02574(0.000)
근속기간(년)	0.01521	0.00837(0.070)	근속기간(년)	0.06124	0.00811(0.000)
근속기간의 제공	-0.00054	0.00029(0.061)	근속기간의 제공	-0.00115	0.00039(0.004)
일반인적자본	0.00318	0.00728(0.662)	일반인적자본	0.01888	0.00451(0.000)
일반인적자본의 제공	-0.00030	0.00016(0.054)	일반인적자본의 제공	-0.00053	0.00012(0.000)
매출액	0.09416	0.01305(0.000)	정규직 여부(1:yes)	0.18480	0.03049(0.000)
근로자고용여부(1:yes)	0.14505	0.04968(0.004)	전일제 여부(1:yes)	0.14754	0.03455(0.000)
-	-	-	종업원수	0.00781	0.00361(0.031)
편의항	-3.49214	0.22478(0.000)	편의항	1.34232	0.11326(0.000)
상수항	6.18559	0.18329(0.000)	상수항	2.32791	0.14120(0.000)
F-값	48.53		F-값	141.69	
Adjusted-R ²	0.5809		Adjusted-R ²	0.5476	
Root MSE	0.5229		Root MSE	0.3712	

주: 2단계 추정에서 종속변수는 조사시점에서의 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이며, 괄호 안의 값은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z| 값임

추정결과는 먼저 임금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특수인적자본과 일반적 인적자본 모두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는 기업의 특수인적자본만이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일반적 인적자본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일반적 인적자본이 자영업의 선택과정에만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에 대한 한계수익률은 여전히 자영업보다 임금근로의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속기간에 대한 한계수익률도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의 경우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논의결과는 우리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자영업자가 되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일반적 인적자본이 많은 고능력자로 임금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득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출한 근로자들 중 자영업자가 된 근로자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들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이 어렵거나 기대수준에 미치는 일자리를 발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저능력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⁴⁸⁾

< 참고문헌 >

- Blanchflower, David G. and Andrew J. Oswald,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98, pp.26-60.
- Blau, David M., "A Time Series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7, pp.445-467.
- Evans, David and Boyan Jovanovic,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9, pp.808-27.
- Evans, David and Linda Leighton,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1989, pp.519-35.
- Lazear Edward P., 『*Personnel Economics*』, 1995, MIT Press.
- Lucas, Robert L.,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1978, pp.508-523.
- Moore, Robert L., "Employer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Self-employed work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2, pp.496-501.
- Bernhardt, I., "Comparative Advantage in Self-Employment and Paid Work,"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May, 1994, pp.273-289.
- Holtz-Eakin, D., D. Joulfaian, and S. Rosen, "Entrepreneurial Decisions and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4, 102, pp.53-75
- Long, J. E., "The Income Tax and Self-Employment," *National Tax Journal*, 35, March, 1982, pp.31-42.
- Schuetze, H. J., "Taxes, Economic Conditions and Recent Trends in Male Self-Employment; a Canada-US Comparison," *McMaster University Working Paper*, 1998, Canada.

48)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과 경력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저임금, 저생산직 임금근로자로서의 재취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보완과제로 남겨둔다.